

## 새 예루살렘이 됨

### 7/10 월

계 21:1-11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5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 7/11 화

계 21:12-27

12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14 그 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성은 네모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17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백사십사 규빗이었습니다.

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24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5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26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7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 7/12 수

### 계 22:1-11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7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8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대와 동일한 노예이며, 그대의 형제 신언자들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일한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10 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1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게 두며,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게 두십시오.”

## 7/13 목

### 계 22:12-21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5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18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7/14 금

###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19:7-9**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렘 2:2**

2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쳐라. ‘네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네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그때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다녔다.’

**렘 3:1, 14**

1 “이렇게들 말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였는데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가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서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몹시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너는 이미 많은 애인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14 돌아오너라,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나는 성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너희를 선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렘 31:32**

32 그것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호 2:7, 19-20**

7 그러면 그녀는 자기 애인들을 쫓아가도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여 ‘가야겠다.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으니까.’ 하리라.

19 나 너를 영원히 내 아내 삼으며 정녕 나 너를 의와 정의와 자애와 자비로 내 아내 삼으리라.

20 정녕 나 너를 진실함으로 내 아내 삼으리니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7/15 토****요 14:1-6, 19-24**

1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3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그 길을 압니다.”

5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22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7/16 주일****엡 3:14-19**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4:11-16**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Churchwide Truth Pursuit of Romans**

Due to the July Training, we encourage the saints to use this week to catch up on and review all the material covered thus far in the churchwide truth pursuit of Romans. To access the Level 1 and Level 2 study materials

and recordings from previous weeks, please visit the church website at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